

# “밀가루 대신 가루쌀”...전남, 생산단지 13곳 조성

### 총 사업비 27억4000만원 전체 44% 비중 최다...의무면적 700ha 밀과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250만원 지원...전량 공공비축미 매입 농식품부, 가루쌀 생산단지 집중 육성...전남농협, 상품 개발 노력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분질미) 생산단지가 전남에서 13곳 선정되며 오는 2023년까지 700ha(212만평) 규모 농사를 짓는다.

이 가운데 11곳은 650ha 규모 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모작으로 가루쌀을 재배할 방침이다.

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내년 가루쌀 생산단지 39곳에 전남 13곳이 포함됐다.

지원 자격은 재배면적 50ha 이상, 참여 농가 15명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으로 내건 가운데 전국 농업법인 40곳이 지난 8-9월 신청했다. 전남에서 신청한 13곳은 모두 통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곳, 충남 6곳, 경남 2곳 등이다.

이들 39곳은 교육·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육묘장·이앙기 등이 포함되는 시설·장비 지원 대상 11곳 가운데는 전남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 정책의 하나로 지난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생산단지 39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100곳, 2025년 150곳, 2026년 200곳까지 늘린다.

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빵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이다. 단백질, 비타민 등 쌀의 기본적인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성장 발육에 좋고 소화에도 잘된다는 장점이 있다. 6월 말 늦이앙(10월 수확)이 가능해 이모작에 유리하다. 기존 가공시설을 활용해 건식 제분도 할 수 있다.

정부는 39개 생산단지에 내년까지 2000ha, 2026년까지는 2170ha 규모의 가루쌀 재배 의무면

적을 배정했다.

전남에서 선정된 8개 시·군의 2023년 의무면적은 총 700ha이다. 해남이 225ha로 가장 많고, 장흥 115ha, 무안 70ha, 진도 70ha, 곡성 65ha, 보성 65, 영암 45ha, 나주 45ha 등 순이다.

이들 단지의 가루쌀 재배의향 면적은 모두 1284.8ha였지만 곡성·보성 등 8-10월 강수량이 많아 수확이 위험이 큰 지역 등은 의무면적이 조정됐다.

전남 13개 단지 생산사업에는 교육·컨설팅 4억원, 시설·장비 23억4000만원 등 27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국 사업비(62억원)의 44.2%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등으로 나뉘며 자부담 10%가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이번엔 지정된 생산단지가 가루쌀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단지에 최대 5억원 규모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단지에서 생산하는 가루쌀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내년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에 따라 가루쌀을 밀이나 동계 조식료와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원,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농협은 안정적으로 쌀을 수급하고 1% 불과한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루쌀로 만든 ‘쌀빵’ 상품 개발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박서홍 본부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쌀 소비 확대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쌀로 만든 제과·제빵점이 늘어나 전남 쌀 소비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수기원” 사진에 건강 새겨요”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맨 왼쪽)은 최근 광주시 북구 본촌동 본점 대강당에서 70세 이상 원로 조합원 75명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을 찍어줬다. 북광주농협은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100여 명의 조합원 촬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겨울철 축산 농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점검



박서홍(오른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4일 함평축협 인근 축산 작업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농협 전남본부, 현장 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축산 기 자체와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박서홍 본부장 등이 지난 4일 함평축협 배합 사료(TMR) 공장 인근 농작업 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박 본부장은 방문한 축산 농가에 작업 전후에 농기계 점검을 생활화하고 작업 현장에 사람이나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업 때 월령한 복장은 되도록 입지 않고 각반으로 소매와 발목 부근을 단단히 조여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덮개 등 안전장치가 있는 농기계를

사용하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사고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작업을 해야 한다. 도로 주행 때는 주행 속도와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남농협 측은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축산 기 자체·농기계 사고는 1269건이 발생해 823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점심 이후인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작업 후 복귀하는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가 주요 발생 시간이었다.

박 본부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후 농기계 점검과 작업 중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우유 원유 가격 리터당 52원 인상...유제품·빵 가격 줄줄이 오를듯



### 농식품부, 인상폭 최소화 요청

낙농가와 유업체가 올해 원유(原乳) 기본가격을 l 당 49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제품, 빵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낙농진흥회는 우유 원유 기본가격을 l 당 999원으로 올려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가격은 l 당 49원 올리고, 올해의 경우 원유가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해 l 당 3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해 실질적으로는 l 당 52원 오르게 됐다.

이번 인상 폭은 지난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과거 원유값이 l 당 21원 올랐을 때 우유 가격이 150~200원 오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우유 가격이 500원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1l 2700원대인 마시는 우유 소비자가 가격은 3000원을 넘게 된다. 또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커피 전문점에선 우유를 넣은 음료 값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

앞서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유업체들은 유제품 가격을 올레만 두 차례 인상했고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빈 등 커피 전문점 대다수도 올해 가격을 올렸는데 업계에서는 가격 조정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옥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여러 식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유 가격은 덜 인상하고 가공제품의 경우 추가적인 인상을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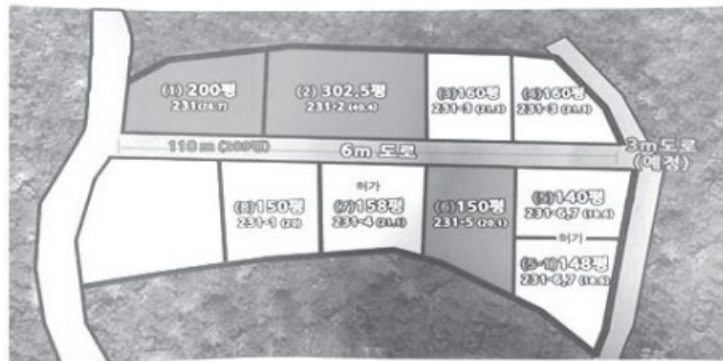
## 장성토지 매매 (분양)

## 경매교육 [ 기초반 ]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 ▶ 경매 물건 추천 ◀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